

生活韓服의 着用實態 및 디자인 選好도에 關한 研究

- 大邱 地域을 中心으로 -

金瑛美 · 夫愛進* · 洪禎敏**

大邱가톨릭大學校 패션産業專攻 講師

濟州觀光大學 뉴티디자인科 專任講師*

大邱가톨릭大學校 패션産業專攻 教授**

A Study on Wearing Behavior & Design Preference for Saenghwal Hanbok

- Focusing on Daegu -

Kim, Young-Mi, Boo, Ae-Jin*, and Hong, Jung-Min**

Lecturer, Major of Fashion Industry Catholic University of Daegu

Full-time Lecturer, Dept. of Beauty Design, Cheju Tourism College*

Prof., Major of Fashion Industry Catholic University of Daegu**

Abstract

To accomplish the above goal of this study, I have taken the statistics about wearing behavior and design preference for Saenghwal Hanbok. This is surveyed by 354 women having jobs 20-50years old-in Daegu. The result of the study is summarized as follows.

People prefer to put on Saenghwal Hanbok same as the Korea Traditional Dress in the traditional holidays and the active style that they can dress as casual clothes having the Korea Traditional Dress's characteristics as well.

Form a viewpoint of appearance, people prefer Jugori have a bit spare width, the length comes near to the waist line, the type of Korean Traditional Dress's sleeve, and the round type that is linked body and sleeve in waist section and length is between knee and the calf of leg.

Key words: design preference(디자인 선호도), jugori(저고리), korea traditional dress(전통한복), saenghwal hanbok(생활한복), wearing behavior(착용실태),

I. 서론

한민족의 역사와 함께 하여 온 한복은 우리의 고유한 민족문화를 상징하는 전통의상으로 조상의 삶과 정서가 담긴 의복이며, 우리의 민족복식으로 길이 보존하고 계승 발전시켜야 하는 복식문화 유산이다. 상고시대부터 근대까지 시대상황과 생활양식의 변화에 따라 우리의 한복은 다양하고 독특한 양식으로 발전되어

왔다.

전통한복은 개화기 이후 서양문물을 접하면서 개량에 대한 논의가 대두되어 복식제도는 점진적으로 변화하게 되었다. 복식제도 개량의 요점은 당시 극도로 짧았던 저고리의 길이와 이와 반대로 보행에 불편한 정도로 길었던 치마의 길이, 하의가 가슴부분을 압박하여 고정함으로써 초래되는 가슴부위의 압박이 건강상 해로움을 발생하므로 이와 같은 단점을 보완시킬 목적

에서 추진되었다.

1890년 체육교육을 실시한 이화학당에서는 어깨에 걸치지 않고 가슴에 매어 입는 치마말기로 인해 몇 번씩 뛰고 나면 치마가 흘러내렸다. 이에 1911년 이화학당의 체육교사 미스 윌트, 미스 페인이 서구인들의 점퍼스커트에 착안해서 치마끈을 어깨에 걸어서 치마가 흘러내리지 않는 조끼형 치마말기로 개량하였다¹⁾.

1920년대에는 양복을 착용한 여성 이외의 대다수 일반 여성들은 과감하게 양복을 착용하는 대신 종래의 한복에 비해 많이 간편해진 개량한복 즉 통치마에 저고리를 착용함으로써 통치마 스타일이 널리 확산되고 정착되기에 이르렀다. 당시의 신문기사에 의하면, 종래의 저고리의 깃과 진동부분에 생기는 주름을 방지하면서 뜯지 않고 세탁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 양복소매와 같이 만든 소매를 달고 뒷길에 시접분량을 적게 하여 박아 주었다고 한다. 그러나 한복의 틀을 많이 벗어난 것이었으므로 사회적으로 용인되기가 곤란하여 제시된 안에 불과하였다²⁾.

1940년에는 군복을 모델로 하여 표준복을 제정한 일본은 한국에서도 양복을 기초로 하여 표준복을 제정하였는데, 옷감의 소비를 줄이기 위해 의복의 길이와 폭 등을 조정하였다.

1950년대 말부터 1960년대의 한복개량운동은 품위 있고 우아한 한복의 고유미를 요구하였지만, 여성들의 인식부족으로 대중화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후 한복의 수요는 양복이 소개되면서 감소되기 시작하고 예복화되어 특수복으로 착용되기에 이르렀다. 이러한 과정에서 한복개량운동은 꾸준히 진행되어 한복의 기본형이 크게 변형되지 않은 범위 안에서 개량안이 사회적으로 용인을 받기에 이르렀다³⁾.

1981년 섬유경진대회를 기점으로 한국 디자인에 대한 관심과 1986년 아시안게임과 1988년 올림픽을 계기로 전통문화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게 되었고, 전통복식에 대한 관심이 새롭게 부각되었다. 이러한 시대적 흐름 속에서 전통적인 한복을 현대적으로 개량하여 생활속에 자연스럽게 정착시켜 한복의 대중화에 기여하고자 생활한복이 등장하게 되었다⁴⁾.

생활한복은 전통한복을 변형시킨 의복으로 개량한복, 변형한복, 실용한복이라는 용어와 함께 사용되어

왔다. 하지만 개량한복이라는 용어는 부정적인 이미지가 강하여 1990년 후반부터는 생활한복이라는 용어로 정착되기 시작하였다.

천중숙⁵⁾은 “개화기 이후의 개량한복이나 전통한복과 차별하여 1990년대 후반에 ‘우리옷’ 또는 ‘생활한복’이라는 이름으로 생산 판매되는 옷”을 생활한복이라고 정의하였고, 조효숙 등⁶⁾은 “한복의 전통미를 유지하되 활동성이 떨어지는 전통한복의 문제점을 보완하여 현대 생활에 편리하도록 디자인 된 한복”을 생활한복이라고 정의하였다. 안명숙 등⁷⁾도 “전통복이 우리 것을 전수한 것이라면, 생활한복이란 현대의 생활에 좀 더 편리하고 기능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약간 변형된 우리옷”이라고 정의하였다. 양정근과 유송옥⁸⁾은 생활한복에 대해서 한국의 전통미를 유지하면서 활동성을 보완하는 동시에 현대적인 감각을 살린 복식이라고 정의하였다.

그러므로 생활한복은 한복의 고유미를 유지함과 동시에 일상생활 속에서 활동하기 편리하고 인체와의 적합도가 높으면서도 현대 감각에 맞는 미적인 의복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의류학 분야에서는 전통한복에 관한 연구 뿐만 아니라 생활한복에 대한 구매실태, 디자인, 구성 등 다각도의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데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최은영⁹⁾은 생활한복의 채택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에서 소비자가 추구하는 이상적 이미지와 상품표현적 실제적 자기이미지, 상품 표현적 면경자기의 비교분석하여 소비자의 구매의도에 갖는 영향력을 설명하였다.

김선경 · 조효숙 · 정인희¹⁰⁾는 생활한복 착용 경험자만을 목적표집하여 그들의 소비 경험과 의식을 집중적으로 분석하고 생활한복 소유와 착용 및 불만족을 연구하였고, 이상은¹¹⁾은 생활한복 제작업체의 현황을 알아보고 경영 · 유통상의 문제점을 분석하여 앞으로 생활한복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제언하였으며, 이지선¹²⁾은 생활한복의 정의 및 형성 · 발전에 대해 조사하고, 현 생활한복업체의 현황을 조사하여 생활한복 제품에 대해 비교 연구하였다.

천중숙¹³⁾은 ‘생활한복’ 또는 ‘우리옷’이라는 이름으로 소비자에게 판매되는 의류 제품 중 남 · 녀 저고리의 디자인을 사례중심으로 비교하여 전통적인 한복과

생활한복의 디자인 구성요소의 차이를 비교 검토하였고, 조효숙·김선경·이희승¹⁴⁾은 소비자들이 선호하는 생활한복 디자인이 전체적으로 어떠한 것인지 또는 성별과 연령대에 따라 차이를 알아보고 생활한복 업체에서 소비자 중심의 디자인을 연구하였다.

이태옥¹⁵⁾은 문헌적 자료에서 고찰한 저고리와 바지의 특징에 따라 남성한복의 디자인개발 및 구성방법을 제시하였고, 채금석¹⁶⁾은 생활한복에 대한 체계적이고 실증적 연구를 통하여 생활한복의 모형을 제작하고 제안하였으며, 최효경¹⁷⁾은 생활한복 취급업체의 실태조사를 통하여 실태와 디자인 유형과 문제점을 파악하고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생활한복 착용실태 및 의식과 디자인 요소별 선호도를 조사 분석하여 디자인을 개발·제작하였다.

현재 생활한복은 기성화되어 생산 판매되고 있지만, 시판되고 있는 생활한복은 저고리 품이 크고, 소매가 넓으며, 치마 폭이 넓거나 길이가 적당하지 못하고 또 한 여림에 대해 만족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대구지역의 20-50대의 직장 생활을 하는 여성 354명을 대상으로 설문지 조사를 통해 연령에 따른 생활한복에 대한 실태를 조사하고, 생활한복의 형태적인 기본패턴과 색상·소재별 선호도를 연령에 따라 파악해 봄으로써 연령별 디자인 선호도를 분석하여 현대감각에 맞는 미적이고 기능적인 패턴을 채택하는 기초자료로 제시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다.

II. 연구 방법

1. 연구대상 및 기간

1999년 6월에 60명을 대상으로 예비조사를 거쳐 설문지를 수정·보완하여, 본 조사는 1999년 7월 9일에서 7월 23일까지 실시하였다.

대구통계연보¹⁸⁾에 근거하여 연령별비례층화추출법을 이용하여 381명을 대상으로 표본을 고르게 얻기 위해 대구시를 7개구와 1개군으로 나누어 사전에 교육받은 8명의 의류학과 학생이 설문지를 배포하였다. 수거한 설문지 중에서 적절치 못한 27개의 설문지를 제외

한 354부의 설문지를 통계처리하였다.

2. 측정도구

고정민¹⁹⁾의 측정도구를 바탕으로 수정·보완하여 생활한복의 착용 실태에 관한 13문항과 선호도에 관한 16문항으로 구성하였다.

3. 자료처리

연구의 자료는 SAS(Statistical Analysis System) 통계 프로그램으로 실행하였다.

III. 분석결과 및 고찰

1. 인구통계학적 특성

연구 대상자의 연령, 학력, 직장근무지, 직업, 월수입 등 인구통계학적 특성은 <표 1>과 같다. 연구대상자는 대구지역에 주로 거주하는 20-50대의 직장여성 354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연령분포는 20대가 136명으로 38.4%를 차지하였으며, 30대가 27.1%, 40대가 21.2%, 50대가 13.3%를 차지하였다. 학력은 대학교 졸업이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고등학교 졸업자 순으로 나타났다. 직업으로는 자영업이 29.9%, 서비스직이 24.9%, 사무직이 22.0%, 공무원이 14.1%, 생산직이 9.03%를 차지하였다.

2. 연령에 따른 생활한복에 대한 실태 조사

생활한복에 대한 실태 조사는 생활한복의 소유량과 생활한복의 착용용도와 계절, 착용자의 이미지, 생활한복의 수요증대 방안, 구매시 주안점 등에 대한 내용으로 연령에 따른 차이를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1) 소유량

생활한복의 소유량은 전체의 86.4%가 생활한복을

<표 1> 연구대상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환경변인	통계치	인원(명)	백분율(%)
연령	20-29세	136	38.4
	30-39세	96	27.1
	40-49세	75	21.2
	50-59세	47	13.3
학력	초등학교 졸업	4	1.1
	중등학교 졸업	25	7.1
	고등학교 졸업	148	41.8
	대학교 졸업	177	50.0
직장 근무지	남구	35	9.9
	동구	50	14.1
	북구	46	13.0
	서구	35	9.9
	수성구	42	11.9
	달서구	50	14.1
	달성군	50	14.1
직업	사무직	78	22.0
	공무원	50	14.1
	자영업	106	29.9
	서비스직	88	24.9
	생산직	32	9.03
월수입	100만원 미만	173	48.9
	100-150만원 미만	113	31.9
	150-200만원 미만	50	14.1
	200만원 이상	18	5.1
		354	100

<표 2> 생활한복 소유량

구 분	표본수(%)				
	20대	30대	40대	50대	합 계
없다	127(93.4)	83(86.5)	63(84.0)	33(70.2)	306(86.4)
1벌	7(5.2)	10(10.4)	5(6.7)	12(25.5)	34(9.6)
2벌	1(0.7)	3(3.1)	3(4.0)	2(4.3)	9(2.5)
3벌이상	1(0.7)	0(0)	3(4.0)	0(0)	4(1.1)
무응답	0(0)	0(0)	1(1.3)	0(0)	1(0.3)
합 계	136(100)	96(100)	75(100)	47(100)	354(100)

소유하고 있지 않았으며, 1벌 이상 소유는 전체의 13.3%로 전통한복에 비해 소유량이 낮게 나타났다. 연령대 별로 생활한복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경우는 20대가 93.3%, 30대가 86.5%, 40대가 84.0%, 50대가 70.2%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즉 연령이 높을수록 생활한복의 소유량은 높다고 할 수 있다. 생활한복 소유량을 나타낸 결과는 <표 2>과 같다.

2) 착용용도

전체 응답 중 41%가 생활한복을 설날, 추석 등의 명절에 입기를 원했으며, 다음으로는 응답자 중 75명인 전체의 21.2%가 평상 시에 입기를 원하였으며, 다음으로는 외출복으로 입기를 원하였다.

연령대 별로는 20대와 30대가 설날, 추석 등의 명절에 착용하기를 원하는 응답자가 가장 많았으며, 40대와 50대의 경우는 평상 시와 외출 시 또는 명절 때에 골고루 입기를 원하였다. 즉 40대와 50대는 생활한복을 다양한 경우에 착용하기를 바라고 있는 것으로 추측된다. <표 3>은 연령대 별로 생활한복의 착용용도

<표 3> 생활한복의 착용용도

구 분	표본수(%)				
	20대	30대	40대	50대	합 계
평상복	19(14.0)	23(24.0)	21(28.0)	12(25.5)	75(21.2)
외출복	19(14.0)	19(19.8)	19(25.3)	13(27.7)	70(19.8)
결혼식이나 행사 참가시	18(13.2)	11(11.5)	14(18.7)	8(17.0)	51(14.4)
혼례복 예복으로	1(0.7)	0(0)	0(0)	0(0)	1(0.3)
명절에	73(53.7)	39(40.6)	19(25.3)	14(29.8)	145(41.0)
무응답	6(4.4)	4(4.1)	2(2.7)	0(0)	12(3.4)
합 계	136(100)	96(100)	75(100)	47(100)	354(100)

를 나타낸 결과이다.

3) 착용 계절

생활한복을 봄·가을에 착용하기를 바라는 응답자는 254명으로 전체의 71.8%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는 여름에 착용하기를 바라는 응답자는 72명으로 전체의 20.3%이며, 겨울에는 27명으로 7.6%를 나타냈다. 이것은 선행연구²⁰⁾의 봄·가을용 소유가 가장 많고, 여름용, 겨울용 순서의 결과와 일치한다.

연령대 별로도 봄·가을에 착용하기를 바라는 경우가 가장 높았다. 20대는 73.5%, 30대는 79.2%, 40대는 66.7%, 50대는 59.6%를 나타내었는데, 특히 30대가 높게 나타났으며 50대의 경우는 봄·가을 착용용도가 다른 연령층과 비교하여 낮게 나타났다. 겨울에는 각 연령대 별로 10%미만으로 나타났다. 생활한복의 착용계절에 대해 연령대별로 나타낸 결과는 <표 4>와 같다.

4) 착용 이미지

착용 이미지 분석 결과는 <표 5>와 같다. 생활한복의 착용자를 보고 한번 입어보고 싶다고 응답한 수는

155명으로 전체의 43.8%를 차지하였으며, 보기는 좋으나 입기는 망설여진다는 응답자 수는 150명으로 전체의 42.4%를 차지하여 한번 입어보고 싶다는 응답자 수와 유사한 비율을 나타냈다.

연령대 별로는 가장 높게 나타난 응답은 20대가 52.2%로 보기 좋으나 입기에는 망설여진다고 응답하였다. 50대는 53.2%가 한번 입어보고 싶다고 답하였으며, 30·40대는 한번 입어보고 싶다는 응답이 각각 47.9%, 46.7%를 나타냈다.

5) 구입계획

생활한복의 구입계획은 <표 6>과 같다. 생활한복을 구입하겠다는 응답은 180명으로 전체의 50.8%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나이가 들어서 구입하겠다는 응답자는 65명으로 전체의 30.5%를 나타내었고, 구입의사가 없다는 응답자는 65명으로 전체의 18.4%를 나타냈다.

연령대 별로는 구입계획 의사는 20대가 44.9%, 30대는 43.8%, 40대는 64%, 50대는 61.7%로 연령이 높을수록 구입계획 의사가 높게 나타났다. 나이가 들

<표 4> 생활한복의 착용계절 표본수(%)

구 분	20대	30대	40대	50대	합 계
봄·가을	100(73.5)	76(79.2)	50(66.7)	28(59.6)	254(71.8)
여름	28(20.6)	13(13.5)	16(21.3)	15(31.9)	72(20.3)
겨울	8(5.9)	7(7.3)	8(10.6)	4(8.5)	27(7.6)
무응답	0(0)	0(0)	1(1.3)	0(0)	1(0.3)
합 계	136(100)	96(100)	75(100)	47(100)	354(100)

<표 6> 생활한복의 구입계획 표본수(%)

구 분	20대	30대	40대	50대	합 계
있다	61(44.9)	42(43.8)	48(64.0)	29(61.7)	180(50.8)
없다	24(17.6)	20(20.8)	12(16.0)	9(19.2)	65(18.4)
나이가 들어서	51(37.5)	33(34.4)	15(20.0)	9(19.2)	108(30.5)
무응답	0(0)	1(1.0)	0(0)	0(0)	1(0.3)
합 계	136(100)	96(100)	75(100)	47(100)	354(100)

<표 5> 생활한복 착용 이미지 표본수(%)

구 분	20대	30대	40대	50대	합 계
보기좋으나 입기에는 망설여진다	71(52.2)	36(37.5)	30(40.0)	13(27.7)	150(42.4)
한번입어보고싶다	49(36.0)	46(47.9)	35(46.7)	25(53.2)	155(43.8)
보기에 좋지않다	2(1.5)	7(7.3)	5(6.7)	5(10.6)	19(5.4)
특수직업을 가진 사람이라는 생각이든다	14(10.3)	7(7.3)	5(6.7)	2(4.3)	28(7.9)
무응답	0(0)	0(0)	0(0)	2(4.3)	2(0.6)
합 계	136(100)	96(100)	75(100)	47(100)	354(100)

어서 구입하겠다고 응답자는 20대가 37.5%, 30대가 34.4%, 40대가 20.0%, 50대가 19.2% 연령이 높을수록 낮게 나타났다. 이것으로 볼 때 아직까지는 생활한복이 젊은 층을 흡수할 수 있는 단계까지는 이르지 못하였다고 여겨진다.

6) 구입가격

생활한복의 한벌 구입가격을 5-10만원 미만으로 구입하기를 원하는 응답자가 236명으로 전체의 66.7%를 차지하였다. 다음으로는 10-20만원 미만은 110명으로 31.1%를 나타냈다. 선행연구²¹⁾에서 생활한복의 구입가격대 별 소유현황을 살펴보면 5-10만원대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난 것과 일치한다. <표 7>은 생활한복 한벌 희망가격을 나타낸 결과이다.

7) 수요증대 방안

생활한복의 착용 보편화를 위해서는 입기에 편리하고 실용적이어야 한다는 응답이 전체의 55.1%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연령대 별로도 동일한 결과를 나타냈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20대의 경우 가격이 저렴해야 한다는 응답이 디자인이 다양해야 한다는 응답이 각각 18.4%

<표 7> 생활한복 한벌 희망가격

구분	5-10만원 미만	10-20만원 미만	20-30만원 미만	30만원 이상	무응답	합계
표본수(명)	236	110	6	1	1	354
%	66.7	31.1	1.7	1.3	0.3	100

와 17.7%로 나타났다. 40대는 디자인이 다양해야 한다고 세탁관리가 편리해야 한다는 응답이 각각 18.7%와 10.7%로 나타났으며, 50대는 가격이 저렴해야 한다고 디자인 다양화해야 한다는 응답이 각각 23.4%와 19.1%로 답하였다. 즉 생활한복의 수요를 증대시키기 위해서는 실용성, 가격, 디자인 순으로 고려하여 제작하여야 하겠다. 생활한복의 수요증대방안 결과는 <표 8>와 같다.

8) 구매시 주안점

생활한복 구매 시 주안점의 결과는 <표 9>과 같다. 생활한복을 구매할 때 전체 응답자의 91명인 25.7%는 형태를, 다음으로는 디자인, 관리, 가격 순으로 답하였다.

9) 생활한복의 선호스타일

<표 10>에서 생활한복의 선호스타일은 모든 연령층

<표 9> 생활한복 구매시 주안점 표본수(%)

구분	20대	30대	40대	50대	합계
형태	44(32.3)	24(25.0)	15(20.0)	8(17.0)	91(25.7)
가격	16(11.8)	14(14.6)	10(13.3)	13(27.7)	53(15.0)
옷감의 질	5(3.7)	10(10.4)	10(13.3)	3(6.4)	28(7.9)
바느질	0(0)	1(1.0)	0(0)	1(2.1)	2(0.6)
색상과 무늬	15(11.0)	6(6.3)	6(8.0)	4(8.5)	31(8.8)
관리	14(10.3)	22(22.9)	21(28.0)	11(23.4)	68(19.2)
디자인	40(29.4)	16(16.7)	11(14.7)	7(14.9)	74(20.9)
유행성	2(1.5)	3(3.1)	2(2.7)	0(0)	7(2.0)
합계	136(100)	96(100)	75(100)	47(100)	354(100)

<표 8> 생활한복의 수요증대방안

구분	20대	30대	40대	50대	합계
가격이 저렴해야한다	25(18.4)	15(15.6)	6(8.0)	11(23.4)	57(16.1)
입기에 편리하고 실용적이어야 한다	68(50.0)	62(64.6)	45(60.0)	20(42.6)	195(55.1)
디자인이 다양해야 한다	24(17.7)	9(9.4)	14(18.7)	9(19.1)	56(15.8)
적극적으로 광고를 해야 한다	9(6.6)	4(4.2)	1(1.3)	1(2.1)	15(4.2)
사이즈가 다양해야 한다	1(0.7)	1(1.0)	1(1.3)	0(0)	3(0.8)
세탁관리가 편리 해야 한다	9(6.6)	5(5.2)	8(10.7)	6(12.8)	28(7.9)
합계	136(100)	96(100)	75(100)	47(100)	354(100)

<표 10> 생활한복의 선호스타일

구 분	표본수(%)				
	20대	30대	40대	50대	합 계
한복에 가까운 스타일	11(8.1)	13(13.5)	11(14.7)	15(31.9)	50(14.1)
양장과 한복의 혼합 스타일	32(23.5)	27(28.1)	29(38.7)	12(25.5)	100(28.2)
양장에 가까운 스타일	17(12.5)	9(9.4)	4(5.3)	5(10.6)	35(9.9)
한복의 멋을 살린 활동적인 스타일	76(55.9)	47(49.0)	31(41.3)	15(31.9)	169(47.7)
합계	139(100)	96(100)	75(100)	47(100)	354(100)

의 47.7%인 169명이 한복의 멋을 살린 활동적인 스타일의 선호도가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양장과 한복의 혼합 스타일, 한복에 가까운 스타일, 양장에 가까운 스타일 순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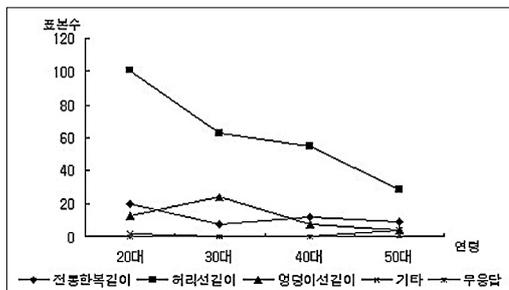
연령대 별로도 한복의 멋을 살린 활동적인 스타일이 선호도가 20대는 55.9%, 30대는 49.0%, 40대는 41.3%, 50대는 31.9%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하지만 50대의 경우는 한복과 가까운 스타일도 31.9%로 높은 선호도를 나타냈다.

3. 연령별 생활한복에 대한 선호도 조사

1) 형태별 선호도

(1) 저고리길이

생활한복의 저고리 길이는 전체 응답자나 연령대 별로도 허리선 길이를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대 별로 두 번째 선호하는 길이는 20대와 40, 50대는 전통한복 길이를 선호하였으나, 30대는 엉덩이선 길이를 선호하였다. <그림 1>은 생활한복의 저고리 길



<그림 1> 생활한복의 저고리 길이 선호도

이에 대한 선호도를 연령대별로 나타낸 것이다.

(2) 저고리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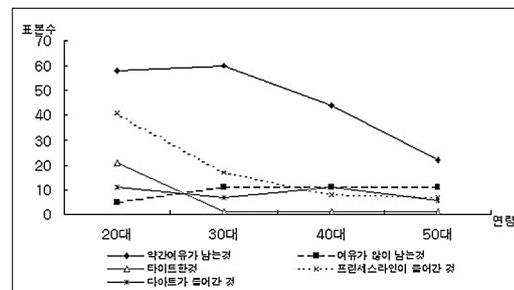
<그림 2>는 생활한복의 저고리폭에 대한 선호도를 나타낸 결과이다. 생활한복의 저고리폭에 대한 선호도는 전체적으로 약간 여유가 남는 것을 가장 선호하였다.

연령대 별로는 30대, 20대, 40대, 50순으로 약간 여유가 있는 것을 선호하였다. 다음으로 선호하는 저고리폭은 20대가 40.1%, 30대가 17.7%로 프린세스라인이 들어간 것을 선호하였고, 40대와 50대는 여유가 많은 것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으로 보아 젊은층에서는 약간의 여유가 있으면서 몸매를 들어낼 수 있는 스타일을 생활한복에서도 요구하는 것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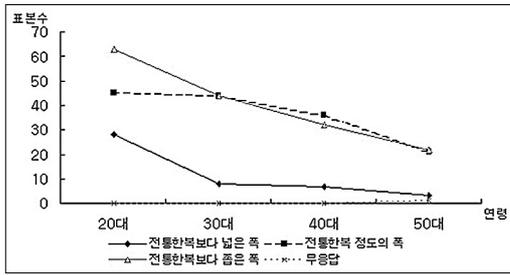
(3) 소매폭

생활한복의 소매 폭 선호도 결과는 <그림 3>과 같다. 생활한복의 소매폭은 전통한복보다 좁은 폭을 가장 높게 선호하였다.

연령대 별로 가장 선호하는 소매폭은 20대는 전통한복보다 좁은 폭, 30대와 50대는 전통한복 정도의



<그림 2> 생활한복의 저고리 폭 선호도



〈그림 3〉 생활한복의 소매폭 선호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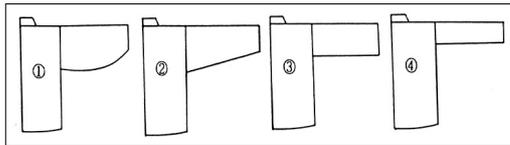
폭과 전통한복보다 좁은 폭이 유사하게 나타났으며, 40대는 전통한복 정도의 폭으로 나타났다.

(4) 소매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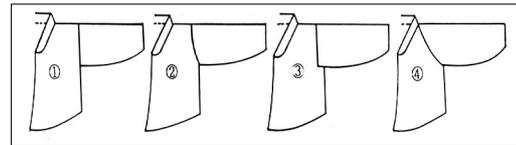
생활한복의 소매형 선호도를 연령대 별로 나타낸 결과는 〈그림 4〉와 같다. 생활한복의 소매형은 둥근형을 가장 선호하였으며, 진동폭은 넓고 소매부리는 좁은 소매형을 두 번째로 선호하였으며, 소매형이 착수형은 0%로 나타났는데 이는 착용하기에 불편하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5) 길과 소매의 연결형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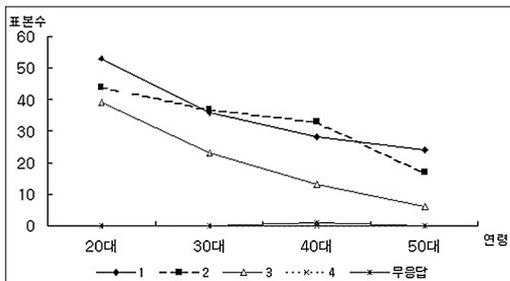
길과 소매의 연결형태는 전통한복식으로 옆선과 직선상으로 된 것은 선호도가 14.1%로 낮게 나타났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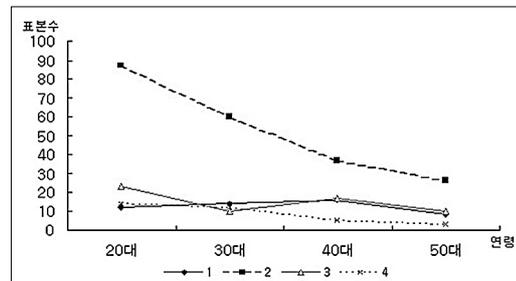
〈보기〉



〈보기〉



〈그림 4〉 생활한복의 소매형 선호도



〈그림 5〉 길과 소매의 연결형태 선호도

연결형태가 둥근형이 59.3%로 가장 높은 선호도를 나타냈다. 이것은 진동의 맞음새에 대한 패턴상의 문제로 판단된다.

연령대 별로는 둥근형이 20대, 30대, 40대, 50대 순으로 나타났다. 〈그림 5〉는 저고리 길과 소매의 연결형태 선호도를 연령대 별로 나타낸 결과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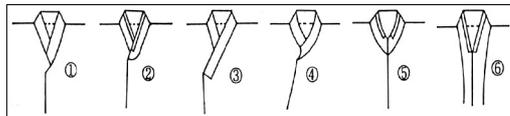
(6) 깃모양

입고싶은 생활한복의 깃모양 중에서 둥근깃 모양을 가장 높게 선호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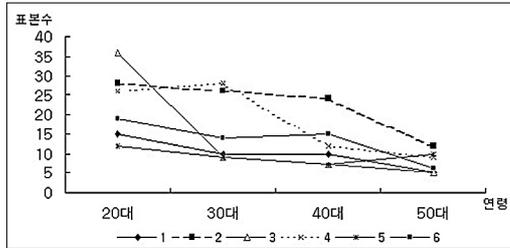
연령별로 가장 선호하는 깃은 20대가 3번인 목판깃이며, 30대가 4번인 당코깃, 40대와 50대는 2번인 둥근깃으로 나타났다. 〈그림 6〉은 생활한복의 깃모양 선호도를 연령대 별로 나타낸 결과이다.

(7) 고름처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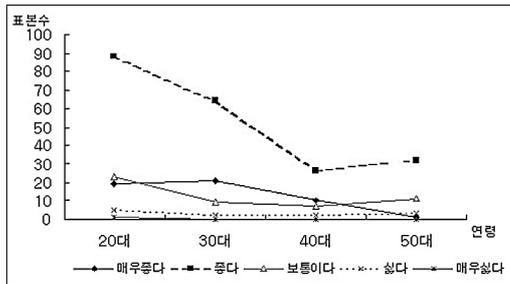
고름대신 단추처리(매듭단추 포함)하는 것에 대해서 좋다는 의견을 가장 선호하였고 연령대 별로는 20대, 30대, 50대, 40대 순으로 나타났다. 생활한복에 있어서 단추로 여밈처리를 하는 것에 대해 선호도가 높은 것은 실용적인 면을 중요시 하기 때문이라고 생각되어 진다. 단추 처리에 대한 선호도 조사 결과는 〈그림 7〉과 같다.



<보기>



<그림 6> 생활한복의 깃모양 선호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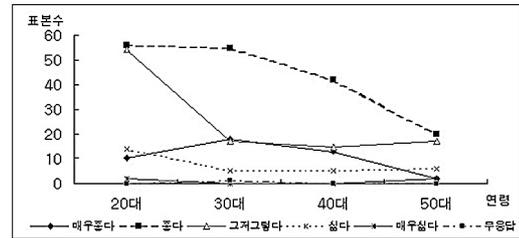
<그림 7> 단추처리에 대한 선호도

(8) 동정처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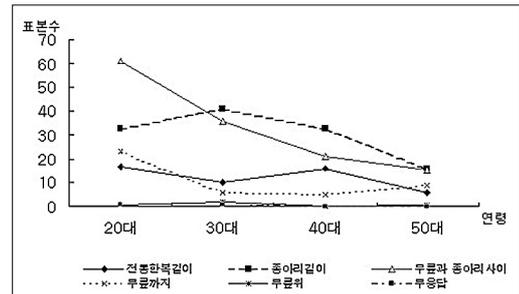
생활한복에 동정을 없애자는 의견이 연령대 별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는 그저그렇다라고 응답하였다. 이는 전통한복에 매번 교체해야 하는 비실용적인 면에서 동정을 싫어하지만, 한복의 미를 나타내는 면에서는 동정을 선호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 <그림 8>은 동정 제거에 대한 선호도를 나타낸 결과이다.

(9) 치마길이

생활한복의 치마길이 선호도 조사 결과는 <그림 9>와 같다. 생활한복의 치마길이는 무릎과 종아리사이 길이를 전체의 37.6%로 가장 높게 선호하였으며, 다음으로 종아리길이를 선호하였다. 무릎과 무릎위까지의 길이는 선호도가 낮게 나타나는 것으로 보아 전통적인 면을 완전히 배제하지는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8> 동정제거에 대한 선호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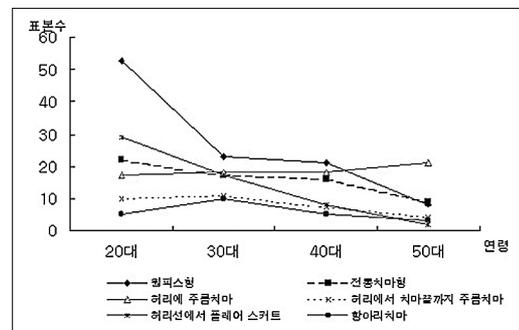


<그림 9> 생활한복의 치마길이 선호도

연령대 별로는 20대는 무릎과 종아리사이 길이를, 30대와 40대, 50대는 종아리길이를 가장 선호하였다.

(10) 치마형태

생활한복의 치마형태는 원피스형이 29.7%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50대는 허리에 주름치마의 선호가 높게 나타났다. 연령대 별로도 가장 선호하는 치마형태는 20대, 30대와 40대는 원피스형으로 나타났고, 50대는 허리에 주름치마형을 선호하였다. 생활한복의



<그림 10> 생활한복의 치마 형태 선호도

V. 결론

본 연구는 대구지역의 20-50대의 직장 생활을 하는 여성 354명을 대상으로 설문지 조사를 통해 연령에 따른 생활한복에 대한 실태 조사 및 생활한복의 형태적인 기본패턴과 색상·소재별 선호도를 연구함으로써 현대감각에 맞는 미적이고 기능적인 인간공학적 패턴을 채택하는 기초자료로 제시하고자 하였다.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생활한복의 소유량은 86.4%가 생활한복을 소유하고 있지 않았으며, 1벌 이상 소유는 전체의 13.3%로 전통한복에 비해 소유량이 낮게 나타났다. 연령대 별로도 생활한복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경우가 가장 높았지만, 연령이 높을수록 생활한복의 소유량은 높게 나타났다. 즉 여전히 생활한복은 보편화되어 있지 않음을 시사하고 있다.

2. 전체 응답 중 대부분이 생활한복을 설날, 추석 등의 명절에 입기를 원했다. 20대와 30대가 명절에 착용하기를 가장 원하였으며, 40대와 50대는 평상 시와 외출 시, 또는 명절 때에 골고루 입기를 원하였다. 즉 젊은이들은 생활한복을 명절복으로, 40·50대는 다양하게 입기를 바랐다. 또한 생활한복은 봄·가을에 착용하기를 바랐다

3. 생활한복의 착용자를 보고 한번 입어보고 싶다는 응답은 43.8%를 차지하였으며, 보기는 좋으나 입기는 망설여진다는 응답은 42.4%를 차지하여 한번 입어보고 싶다는 응답자 수와 유사한 비율을 나타내었다. 이는 즉 생활한복은 입고 싶으나 여전히 착용하기를 망설이는 여성이 많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

4. 생활한복을 구입계획이 있다는 응답은 50.8%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나이가 들어서 구입하겠다는 응답자는 30.5%를 나타내었다. 한 벌의 구매가격은 5-10만원 미만으로 구입하기를 원하는 응답자가 66.7%를 차지하였는데, 이는 생활한복이 저렴한 가격대를 원하는 것으로 파악할 수 있다.

5. 생활한복의 착용 보편화를 위해서는 입기에 편리하고 실용적이어야 한다는 응답이 가장 높게 나타나는데, 이는 생활한복의 수요를 증대시키기 위해서는 실용성을 우선 고려해서 디자인해야 한다는 결과를 나

타냈다.

6. 생활한복의 선호스타일은 모든 연령층이 한복의 멋을 살린 활동적인 스타일의 선호도가 가장 높았다. 이는 한복의 고유성을 살리고 기능적으로 활동이 편한 생활한복으로 제작되어야 함을 시사하고 있다.

7. 형태 면에서 저고리는 허리선 정도의 길이와 약간 여유가 있는 품으로, 소매는 전통한복형의 소매형과 전통한복보다 좁은 폭으로 하고, 길과 소매의 연결 형태는 둥근형을 선호하였다. 깃은 둥근깃 모양을 가장 높게 선호하였다. 고름 대신에 실용적인 매듭처리를 선호하였다. 치마는 허리에 주름이 있으면서 무릎과 종아리사이의 길이로 원피스형태의 치마를 선호하였다. 무릎과 무릎위까지의 길이는 선호도가 낮게 나타났다.

8. 색상으로는 상하 다른색을 가장 많이 선호하였으며, 색상에서 오는 느낌은 온화하고 부드러운 느낌의 선호도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상하 다른 배색의 옅은 색 저고리와 짙은색 치마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생활한복으로 입고 싶은 소재는 전체적으로 면과 모시를 가장 선호하였다.

본 연구에서 살펴본 결과 활동량이 많은 직장생활을 하는 여성들이 생활한복을 보편적으로 착용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한복의 고유한 멋을 지닌 활동적인 스타일에 실용성이 겸비된 생활한복으로 제작되어야 하겠으며, 특히 생활한복의 패턴제작에 있어 저고리의 품과 길이, 소매의 폭과 형태, 고름의 처리, 치마길이와 형태 등을 고려한 활동적이고도 기능적인 설계가 이루어져야 하겠다.

본 연구의 제한점으로는 대구 지역에 한정된 연구이므로 확대 해석하는데 무리가 있으므로 차후 광범위한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참고문헌

- 1) 유수경(1990). 한국여성 양장변천사. 일지사. 150.
- 2) 고정민(1997). 생활한복에 대한 인식구조와 선호도에 따른 디자인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3) 남윤숙(1990). 한국 현대여성복식제도의 변천과정 연구. 세종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4) 이상은(1998). 생활한복의 실태조사 및 생활활성화 방안을 위한 제언. 한복의 세계화 이미지. 문화관광부.
 - 5) 천종숙(1998). 생활한복 저고리 디자인의 구성적 특성에 관한 연구. 한국의류학회지, 22(6), 691-698.
 - 6) 조효숙, 김선경, 이희승(1998). 생활한복의 디자인 선호에 관한 연구, 생활과학연구지, 4, 87-110.
 - 7) 안명숙, 김은정, 양숙향(1998). 현대 생활한복 형성의 배경과 방향. 복식, 39, 91-98.
 - 8) 양정은, 유송옥(2000). 생활한복의 디자인 현황과 고급화 방안 연구. 복식, 50(3), 145-159.
 - 9) 최은영(1999). 생활한복의 채택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위험지각과 자기이미지를 중심으로-. 복식, 42, 43-57.
 - 10) 김선경, 조효숙, 정인희(1999). 생활한복 착용경험자들의 소비실태 및 의식 연구(I) -소유 및 착용 - 불만족 지각을 중심으로-. 한복문화학회, 2(1), 121-134.
 - 11) 이상은. 앞글.
 - 12) 이지선(1998). 생활한복 제품에 대한 비교 연구- 착용 사례를 중심으로-.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13) 천종숙. 앞글. 691-698.
 - 14) 조효숙, 김선경, 이희승. 앞글. 87-110.
 - 15) 이태옥(1993). 韓服 生活化를 위한 디자인 開發에 關한 研究 -남성 일상복을 中心으로-. 건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16) 채금석(1999). 생활한복 모형개발 연구 (I). 복식, 46, 110-131.
 - 17) 최효경(1998). 생활한복의 실태와 선호도 조사에 따른 디자인 연구. 영남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18) 대구통계연보(1998). 대구광역시.
 - 19) 고정민. 앞글.
 - 20) 김선경, 조효숙, 정인희. 앞글. 121-134.
 - 21) 김선경, 조효숙, 정인희. 앞글. 121-134.
 - 22) 이지선. 앞글.
-
- (2003년 10월 16일 접수, 2003년 11월 15일 채택)